

# 急伸張한 말聯 야자油 産業

## 10年사이 最大 生産國으로 浮上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생산 및 수출이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 성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자유는 말레이시아의 중요 수출 주종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나라의 외화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야자油의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0년 동안 야자 열매생산 및 야자유 수출 강화를 위해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꾸준한 노력과 정성의 덕택으로 말레이시아는 오늘날 세계적인 야자유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야자유 수출국이며 제 2위와 제 3위 수출국들은 인도네시아와 코트디브와르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지난 10년동안 야자 산업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덕택으로 야자유 수출면에 있어서는 이들 두나라가 도저히 따를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기록했다.

농업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코트디브와르가 야자산업 개발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격차는 앞으로 수년 이내에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야자산업은 금년 여름에 전세계적으로 밀어닥쳤던 혹심한 이상가뭄현상으로 인해서 다소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야자산업개발 노력과 또 정부와 농민들의 피나는 가뭄극복 노력등의 덕택으로 생산증가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生産 124萬톤 급증

말레이시아의 급격한 야자산업개발은 우선 야자나무 재배면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나라의 야자나무 재배면적은 지난 65년만 해도 20만 8천 에이커에 불과 했었으나 불과 10년만인 75년에는 이경작지가 무려 1백 24만 에이커로 급증했다.

이 같은 경작면적의 확대에 따라서 야자 기름의 생산량도 65년의 14만 9천톤에서 75년에는 1백만톤으로 꺾증 뛰었으며 수출 또한 65년의 14만 1천톤에서 75년에는 1백만톤으로 급증했다.

앞으로의 수출 증대 전망 또한 극히 고무적이다.

전세계의 식용유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수출량 증가는 기정 사실인 것이다.